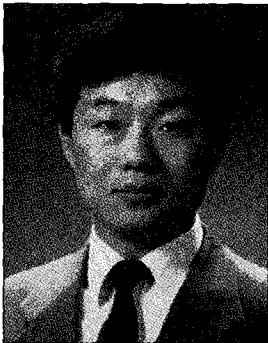


“광학기서류 수입선다변화 해제 대응 방안 및 수출촉진 대책”

글 : 김남영/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 사무관



▲ 김남영 사무관

I. 개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시행하여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WTO체제 출범등 세계무역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완화 과정을 거쳐 99년 7월 완전 폐지된다.

광학기류 제품중 복사기 및 카메라는 1988년부터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으나 PPC (Plain Paper Copier) 복사기 및 SLR(Single Lens Reflex)카메라는 99년 1월, LSC(Lens Shutter Camera)카메라는 99년 7월 해제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경영의 활성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탄력적인 세제운영 등 제반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다변화해제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광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광학산업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II. 광학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평가

카메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도입을 통한 국내생산을 시작한 이래 90년대 들어 자체모델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등 공격적인 경영활동을 해왔다. 이에 힘입어 독자모델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핵심요소기술 및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면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질, 성능, 디자인, 가격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제 카메라 선호의식으로 종합적인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복사기는 외국기업과 합작 또는 기술도입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한 이래 설비투자, 주

“
기업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실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품질경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요부품의 국산화, R&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중·저속 기기 분야에서 일본에 OEM 역 수출을 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으나 역시 핵심부품의 경우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고속기 등은 일본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면에서 대형 선진국 업체에 비해 생산, 기술개발력이 열약하고, 특히 내수 시장이 협소하여 생산에 수반되는 금형, 치공구 등의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가격경쟁력면에서 취약한 상태이다.

Ⅲ. 해제에 따른 영향

카메라나 복사기의 경우 품목별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 시장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일본이 기술이전 회피, 핵심부품·소재의 경우 공급조절 또는 공급가격을 인상할 경우 완제품 수출물량 차질등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핵심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경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없이 광학산업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국내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월등한 기술력 및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 생산초기 단계에게부터 국내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Ⅳ. 대책

가.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경영 활성화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무엇보다도 과거와 전혀 다른 경영 패러다임에 입각한 기업활동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쟁대상은 특정기업, 한정된 시장이 아니며 세계 초일류기업,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비전과 전 종업원의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한개선·무한혁신을 통한 고객만족·고객감동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품질경영운동에 대한 재인식과 체계적 도입·확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품질경영운동을 급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재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과거 정부주도에 의한 획일적인 “품질경영운동”을 지양하고 기업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실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품질경영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한국표준협회 등 전문단체, 학계 및 정부관계자로 실무팀을 구성, “품질경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업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기반 확충

선진국이 이전을 기피하는 첨단기술 및 미래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97년말부터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응용디지털화상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공통 애로기술을 발굴,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수입이 많은 핵심부품 및 소재류에 대해서는 자본재 국산화 전략품목으로 매년 일정품목을 지정하여 개발자금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산화에 성공한 품목의 경우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신기술보급사업과의 연계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부분의 자주적인 기술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핵심 기술인력의 양성·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광학분야 석·박사과정의 신설과 10개이상의 우수 공과 대학에 광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대학의 정원 증원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는 한편 현장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대학에 광학기기 관련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다. 내수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수출산업화 촉진

IMF 체제 이후 급격한 내수 시장 위축과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국내 경쟁 격화가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수입이 많은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해서는
자본재 국산화 전략품목으로
개발자금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광학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예상되는바 무엇보다도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광학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적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품소재의 공용화 추진, 공동구매 등을 통한 규모의 달성, 원자재의 수급안정, 광학유리의 할당관세 또는 무세화 추진 등 광학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내 유통구조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내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조정관세 및 기본관세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국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학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문박람회 참가 확대, 수출전략기종 발굴, 틈새시장 개척 등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전시회 기간중 한국의 전통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